

#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39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5월 1일

##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임정운\_고려대학교 강사

1. 머리말
2. 돌궐의 이화제화(以華制華)
3. 중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와 돌궐의 반격
4. 돌궐 붕괴의 결정적 원인
5. 맺음말

#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임정운\_고려대학교 강사

## 1. 머리말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국의 대외관계사 연구는 대체로 주변 국가가 ‘어떻게 중국 중심적 국제질서로 편입됐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중국 주변 국가들이 스스로 중국 중심적 질서체제로 편입하고자 했을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돌궐사의 시각에서 중국 대외관계사를 살펴보았다.

## 2. 돌궐의 이화제화(以華制華)

돌궐<sup>1</sup>은 6세기 중반 중국 북쪽 지역에서 흥기한 유목 민족 국가로, 돌궐1제국(545~630), 돌궐2제국(682~745)으로 나뉜다. 이 글에서 돌궐은 돌궐1제국 시기의 동돌궐을 가리킨다.

전성기의 돌궐은 중국에 크게 위협을 미칠 정도로 강력했으나, 돌궐 제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국 역사서에 의존하고 있다. 돌궐 비문의 발견으로 돌궐사 연구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기록이 단 순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돌궐 역사를 복기하려면 중국 역사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중국 역사서에 나타난 돌궐에 대한 기록이 중국 입장에서 쓰였다는 데 유의하며, 기록의 행간에 숨은 의미를 짚어 가야 한다.

돌궐 제국이 흥기할 당시 중국은 북주(北周, 557~581)와 북제(北齊, 550~577)가 북중국 지역을 차지하려고

1 돌궐은 ‘Türk’의 한문 표현이다. 현재 튀르키예는 돌궐을 자신들의 뿌리로 생각하고 있다.



6세기 후반의 돌궐 제국



카라코룸에 남아 있는 돌궐 비문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면, 돌궐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여러 유목 세력을 합병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 유목 민족 국가는 뛰어난 무력을 이용하여 농경 지역에서 물자를 조달하려는 특징이 있는데, 돌궐은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약한 북주의 적극적인 구애로 외교 관계를 구축했다. 북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는 돌궐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제공이었다.

564년 북주와 북제는 대규모 전쟁을 벌였다. 북주는 돌궐의 군사적 지원 약속을 믿고 북제와 전쟁을 시작했지만 돌궐은 갖은 핑계를 대며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돌궐은 북주에 북제의 공격을 부추기기까지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564년 전쟁을 기점으로 돌궐과 북제, 북주의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돌궐은 북주 편향적이었던 외교 노선을 바꿔 북제와도 교류를 시작했다. 북주와 북제는 돌궐의 돌발적인 군사 활동을 막기 위해 돌궐에 끊임없이 물

자를 갖다 바쳤다. 중국 역사서에 돌궐의 가한(可汗)<sup>2</sup>이 “남쪽에 효성스러운 두 아들이 있으니 무엇을 걱정하겠는가!”<sup>3</sup>라며 상당히 만족스러워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돌궐은 북주와 북제의 갈등을 철저히 이용했다. 이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을 역으로 사용한 것이다. 즉 중원 국가로 중원 국가를 제어하는 이화제화(以華制華)이다.

이후 북주가 북제를 무너뜨리고 중국 북쪽 지역을 통일했다. 하지만 돌궐에게는 결코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다. 두 세력이 비등하게 대치하고 있어야 돌궐의 눈치를 보며 재물을 헌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돌궐은 한동안 북제의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사실 유목 민족 국가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야만’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경향이 있다. 또한 농경 지역을 대규모로 약탈하여 나라 경제를 꾸러 갔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있다. 그러나 돌궐은 주변국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기민한 외교 전술을 펼쳤다. 그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최대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그런데 581년 수(隋, 581-619)가 중국 전역을 통일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 3. 중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와 돌궐의 반격

북주 출신 양견(楊堅)은 경쟁 세력을 제거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뒤 나라 이름을 ‘수(隋)’로 바꾸고, 문제(文帝)로 등극하였다. 중국 지역을 완전히 통일한 세력의 등장은 돌궐에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돌궐은 수의 변경을 침입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기존에 취했던 실리를 챙기고자 했다. 그런데 이때 장손성(長孫晟)이란 인물이 돌궐 정책에 두각을 드러내며 수의 역사에 등장했다. 장손성은 일찍이 사신으로 돌궐에 머물며 돌궐의 지리와 상황들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돌궐 지도층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장손성은, 이를 이용하여 돌궐을 무너뜨리고자 했다. 장손성은 돌궐 지도층 중 비교적 군사력이 약한 인물을 포섭했다. 애초에 장손성은 수 문제에게 이이제이 방식으로 돌궐을 제압하겠노라 보고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이때 수에 협력한 돌궐의 가한은 계민가한(啓民可汗)이다. 계민가한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수를 배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를 도와 다른 돌궐 세력이 수의 변경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착실하게 군사적 원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계민가한은 수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받았다. 중국 역사서에

2 돌궐 제국 군주의 칭호. 대가한을 필두로 하여 소가한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자 맡은 영역을 지배했다.

3 『周書』 권50 異域下, p.911.

따르면, “계민가한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제 계민가한을 경계해야 한다”<sup>4</sup>라는 상소가 올라올 정도였다.

그런데 수의 두 번째 황제인 양제(楊帝) 양광(楊廣)이 계민가한을 방문했을 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계민가한의 세력지에서 수 양제가 고구려 사신을 마주친 것이다. 수 양제는 계민가한과 고구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음을 의심했다. 이때부터 수 양제는 집착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했고, 이 시기 중국 역사서에는 돌궐이 잠시 사라졌다. 계민가한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시필가한(始畢可汗)이 그 뒤를 이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중국 역사서에서 사라졌던 돌궐이 다시 등장한 것은 수가 고구려 전쟁으로 한창 어려울 때였다. 돌궐이 수를 노략질하는 도적 세력을 도왔다는 것이다. 즉 시필가한은 시종일관 수에 협조적이었던 부친의 방침을 버리고, 수가 어려운 틈을 타서 반기를 든 것이다.

더는 협조적이지 않은 돌궐 세력을 다스리고자 수는 다시 한번 이이제이의 방법을 쓰고자 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배구(裴矩)였는데, 과거의 장손성이 그랬던 것처럼 돌궐의 분열을 꾀하고자 했다. 그러나 배구의 전략은 돌궐에 드러나는 바람에 시필가한의 적대감만 상승시켰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돌궐의 가한들은 시종일관 중국에 적대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수 말기의 혼란 속에서 반란을 일으킨 여러 세력이 각지에서 할거하자, 돌궐은 이러한 할거 세력을 적극적으로 도와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 할거 세력 중 하나가 훗날 당(唐, 618-907)을 건국한 이연(李淵)이다. 이연은 돌궐이 원하는 바를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하여 돌궐의 요구를 수용했고, 돌궐의 협조를 바탕으로 장안에 입성하여 당을 건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돌궐은 이연을 돕는 와중에도 이연의 적인 또 다른 할거 세력에 대한 원조를 잊지 않았다. 할거 세력에게 얻는 재물의 이익 역시 돌궐에 큰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역시 ‘이화제화’였으며, 단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수문제 양견

4 『隋書』 권60, 段文辰, p.1459.

## 4. 돌궐 붕괴의 결정적 원인



당 태종 이세민

618년 당이 건국한 이후, 돌궐은 굉장히 호전적으로 당을 대했다. 역사서에 따르면, 돌궐은 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했다고 한다. 더구나 시필가한 이후 돌궐 대가한들은 당의 재물 공세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아 당 건국 후 몇 년간 변경 지역의 혼란과 피해가 말도 못 하게 심해졌다. 이에 대해 당 고조(高祖) 이연이 신하에게 의논했을 때 “수도 장안에 진귀한 물건이 많아서 돌궐이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다. 장안을 불태우고 다른 곳으로 가자”<sup>5</sup>라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고조도 이 황당한 의견에 수긍하여 수도를 옮길까 고민했는데 이때 훗날 당 태종(太宗)이 되는 이세민(李世民)이 곧 돌궐을 붕괴시킬 것을 약조했다. 이때부터 역사서 기록은 대체로 이세민의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세민은 앞서 등장한 장손성의 사위로, 돌궐에 관한 지식이 매우 해박한 편이었다. 이세민 역시 돌궐 지도층의 내부 분열을 꾀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돌궐은 마지막 가한인 힐리가한(頡利可汗)을 끝으로 결국 붕괴되어 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돌궐은 626년 정도까지 강성하다가 갑자기 몰락하여 630년 힐리가한이 당에 항복하면서 돌궐

1제국이 끝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돌궐 사정에 정통한 장손성이 돌궐 내부 분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면 이세민은 단기간에 돌궐을 공략할 수 있었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서 당시 돌궐 지역에 유례가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세민 역시 돌궐의 자연재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5 『新唐書』 권215上, 突厥上, p.6031.

고 있었다. 돌궐에 사신으로 다녀온 신하 하나가 “지금과 같다면 돌궐은 3년을 넘기지 못한다”<sup>6</sup>라고 한 말을 신뢰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즉 돌궐이 자연재해로 피폐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대체로 이세민이 구사한 걸출한 전술 전략이 동돌궐의 불귀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지만, 자연재해라는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봤을 때, 돌궐1제국이 존속한 545~630년까지 80여 년 동안 중국과 돌궐의 적대 관계가 소강상태에 있었던 때는 계민가한이 수에 협조한 시기뿐이었으며, 그 이외의 기간에는 돌궐이 중국을 위협하고 중국은 재물로 이를 무마하는 일이 반복됐다. 630년에 결국 돌궐이 당에 항복했으나 돌궐의 상황이 나빠진 것은 627년경부터이며 이전까지 당은 줄곧 돌궐로 인해 곤란에 빠졌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중국과 돌궐의 관계를 ‘중국 중심적 질서체계의로의 편입’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돌궐은 오로지 중국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중국 중심의 질서’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돌궐1제국 시기의 중국은 여러 번의 왕조 교체로 인하여 국내 질서를 바로잡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중국과 돌궐1제국의 관계는 돌궐은 공격하고 중국은 방어하는 형태로 전개됐다. 즉 이들은 ‘공수 관계’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6~7세기 돌궐과 중국의 관계는 결코 ‘중국 중심적 국제질서로의 편입’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중국과 돌궐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각자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했다.

6 『冊府元龜』 권655, 奉使部四 智識, p.7557.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 임정은 |

고려대학교 강사. 전공은 중국 중세사이다. 2022년 『중원왕조와 돌궐1제국(545~630) 관계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